월요광장

대일외교 너무 굴욕적이다

박 석 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지난 달 4월은 음력으로는 3월이었다. 음력 3월 10일은 나의 고향마을인 무안군 평산리(平山里)에 있는 평산사(平山祠)의 제향일(祭享日)이었다. 평산사에는 한말 학자이자 의병장이었던 면암 최익현과 송사 기우만 및 두 분의 제자이자 의병활동을 했던 민재 박임상 등 세 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다. 해마다 참석했던 대로 금년에도 참례하여 세 애국자이자 독립운동가의 영혼에 추모와 숭모의 간절한 마음을 바쳤었다. 그 5일 뒤인 음력 3월 15일에는 구례에 있는 매천사(梅泉祠)의 초대를 받고 초헌관으로 참례하여 술잔을 올려 바쳤다. 매천사는 1910년 망국의 소식을 듣자 분노와 억울함을 못 견디고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던 시대의 지사(志士)이자 탁월한 시인이던 매천 황현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최익현은 74세의 극노인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대장이 되어 일본군과 싸우다가 포로로 일본의 대마도로 끌려갔고, 감옥에서 일본의 물 한 모금 쌀 한 톨인들 먹지 않겠다면서 단식 투쟁을 하다 끝내는 병이 들어 순국하고 말았던 조선의 마지막 학자·의사였다. 그는 벼슬하던 때에도 불의한 권력에 맞서 투쟁하다 제주도로 귀양가고 흑산도로 귀양갔는데, 흑산도는 그 당시 무안 땅이어서 제자가 살던 마을에 사당이 세워지게 되었다. 최익현은 조선을 침략하던 일본에게 16 죄(罪)를 성토하면서 거짓과 위계로 조선 침탈을 감행할 때 침략을 멈추고 당장 물러가라고 죽음을 각오한 싸움을 전개한 의병장이었다. 그런 뜨거운 의혼이 평산사에는 엄연하게 살아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을 그대로 두지 말라고 무서운 눈빛으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매천 황현은 누구인가. 광양에서 태어나 뒷날 구례로 옮겨 살았지만 조선을 대표하던 시인이요, '매천야록'이라는 뛰어난 역사책을 저술한 당대의 역사가였다. 그는 진사(進士) 이외의 벼슬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은 시골의 선비에 지나지 않았으나 불타는 애국심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나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망국 소식에 곧바로 음독 자결로 나라에 보답한 애국자였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얼마나 많은 우국지사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자결을 감행하면서 일본에 대한 원통함을 참지 못했던가. 그들 모두를 열거하면서 그들의 분노와 억울함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가는 생략하더라도 최소한 최익현과 황현 두 분의 분노와 억울함을 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런 두 분의 혼령이 평산사와 매천사에서 만이라도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지켜 보노라면 망국 즈음에 불타던 애국심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강제노역, 위안부 문제 등 민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에 정부 대응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주고 있다.

최근의 사도광산 문제만 해도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네이버 라인 문제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아무리 일본이 좋고 친일파의 본색을 감추지 않는다고 해도 명색이 국가라면 국가의 체면은 살려내는 외교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 대 국가의 외교가 아니라 친일사대주의 외교가 전개되고 있으니 최익현, 황현의 분노와 억울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현재에 20세기 초 나라가 망할 때의 심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만은 아니다. 최익현, 황현의 우국충정이나 애국심은 그때로서는 참으로 탁월했다. 그러나 오늘 세계화 시대에 일본을 적국으로, 침략세력으로 여길 수는 없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최소한의 민족의 자존심이나 주체적이고 정체성을 지닌 외교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잘못은 잘못이라고 따져야 하고 잘못을 따져서 시정하지 않을 때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외교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굴종과 굴욕의 외교만 진행되고 있으니 민족의 혈기를 그냥 묻어둘 수 없지 않은가.

정권은 유한하고 민족과 국가는 영원하다. 한시적인 정권의 유지를 위해 민족의 혼을 말살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야말로 공정한 외교, 상식적인 외교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평산사와 매천사의 최익현과 황현의 영혼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외교로 환원해야 한다.

수필의 향기

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박 용 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얼마 전이다. 그는 나를 매우 잘 아는 척했다. 사실 난 그냥 지인 정도로 여겼는데, 서운하다는 거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속았단다.

아차 했다. 여행을 가자는 걸 마다했더니 돌아온 말이다. 내가 너무 속내를 드러낸 모양이다. 몇 번 친절했더니 그것으로 나를 규정해버린 모양이다. 악당으로 치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여하간 그와 나는 친소관계의 농도는 물론 바라보는 각도가 서로 달랐다.

회사에는 같은 공간이나 벽 사이로 여러 동료가 근무한다. 동 시간에 출퇴근하고 함께 식사하니 협업 관계를 뛰어넘어 가족 못지않은 사이임이 분명하다. 애경사나 친목 행사로 허름해진 끈을 중간중간 조여 매기도 한다.

그런데 어딘가 틈이 없지 않다. 각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새처럼 우리 역시 이념이나 종교, 성별, 세대 차이, 생활방식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살아간다.

간혹, 그 수많은 차이를 무시하고 몇 가지 공통분모를 가지고 나를 안다고 할 때, 나는 무척 당혹스럽다.

그들은 인적 네트워크에 애면글면 집착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모양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로 친근감을 표시해서 거리를 좁히려고조차 한다. 지연 학연 혈연은 큰 줄기이고, 심지어 친구의 친구라는 구석까지 연결하여 아는 것을 찾으려 애쓴다. 그리고 그 정보들이 웬만큼 수집되면 결론을 내린다. 나는 그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것은 힘이다. 거기에 사람을 아는 것은 더 큰 힘이다. 아주 사소한 이웃 간의 다툼도 아는 이가 중재하면 쉽사리 해결되고, 읍내의 복잡한 문제도 아는 이를 통하면 곧잘 해결된다. 사업이 정치가 그랬고 법 위에 네트워크가 그랬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을 아는 것은 더 큰 힘이다.

그들이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를 맺어 고작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일일 뿐이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실로 어렵다. 알 수도 없거니와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 모르는 함정으로 빠져버린다. 변화무쌍한 인간을 자신도 모르는데 까짓 부스러기 잡동사니 몇 조각으로 누구를 무엇을 안다는 말인가. 오죽했으면 선각자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까.

제행무상, 부처님은 제법 무상이라고 했다. 누군가를 안다고 여기는 것은 각주구검의 우를 범하는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런 인간 내면 곧 그 내면의 출렁이는 갈등을 허구의 틀로 빚은 조형물이 문학이다. 종교나 이념 등 여러 갈등 중에 특히 문학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자기 내적 갈등, 곧 자기 세계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부단히 움직이는 정체성을 탐색하는 지난한 과정이지 싶다. 그만큼 한 인간의 내면은 탐구하기 난해한 유동적이고 깊은 바다이자 무한히 넓은 하늘이다.

우린 조금 자라면 개인적 자아를 감추고 동시에 사회적 자아라는 페르소나를 쓴다. 그 사회적 자아나 물리적인 네트워크 몇 가지 조합으로 그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시건방을 떠는 일이다.

그렇게 잘 알던 사람들이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단단하다는 네트워크는 그 사회적 자아는 어디 갔는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때론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책임한 말이다. 도대체 무엇을 잘 안다는 말일까. 사람은 하나의 방대한 우주다. 그것도 변화무쌍한 대우주이다. 찾고 또 찾을 뿐이다.

우린 누군가의 그 무엇을 잘 알 수 없다. 단지 광활한 우주 중에서 우주의 한 부분 수수께끼를 탐색하고 있을 뿐이다. 그와 친할 뿐 그를 잘 안다는 것은 오만이자 교만이다. '인간은 ○○하는 동물이다.' 흔히 쓰는 문장의 동물을 자칫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동물로만 파악하기 쉽다. 하지만 움직이는 진짜 주체는 몸이 아니라 정신이다. 마음은 몸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도 움직인다. 동물이란 정신 곧 마음이 움직이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니 대저 누구를 안다는 말인가.

나는 종종 넌 누구냐고 나에게 묻는다. 그러면 내 속에서 누군가 대답한다.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십니까.

기 고

시대의 어른, 오방 최흥종

서 순 복
호남영성연구원 이사장
조선대 법학과 교수

우리 사회는 부인할 수 없는 다민족·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이 만들어준 다문화가족이 상당수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엄마한테 학교 숙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국어에 서툴고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다문화 엄마는 힘들어한다. 낯선 이국 땅 한국에 시집와서 나이 차이가 있는 남편에게 홀대받는 것은 둘째로 치고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한다. 또한 평동공단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근로자가 낳은 아이들의 취학문제와 아이들이 아플 때 의료보험 등 병원문제도 있다.

광주 월곡동에는 고려인마을이 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디아스포라로 해외로 이주해 고생했던 독립운동가들 후손이 구소련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에 까레이스키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고 탈북 새터민들이 광주에도 많이 살고 있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인권은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 시대와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회취약계층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이 있다.

문화는 흐르고 교류는 계속된다. 1904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풍장 터였던 양림동에 선교 둥지를 틀고,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워 교육과 의료와 선교에 헌신하였다. 광주에서 열린 첫 예배인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했던 최흥종은 서양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이 세운 병원에서 조수로 일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과거의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삶의 일대 전환을 이루게 된다. 1909년 목포 선교부에 있던 포사이드 선교사를 마중 나갔던 영산포에서, 다리 밑에 거적때기를 쓰고 진물이 흐르는 한센인 나병환자를 발견한 서양 선교사는 타고가던 말에서 내려 그 여인을 태우고 여인의 지팡이를 짚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최흥종은 나병에 옮을까 봐 순간 주저하였다. 이것이 최흥종 회심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후에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웃인 나환자를 섬기는 사역에 최흥종 목사는 헌신하게 된다. 봉선동 일대에 자신의 땅 1000여 평을 한센병 환자 수용시설을 위한 부지로 기부하고 나병 퇴치를 위한 운동 조직에 관여했다. 광주의 첫 장로이자 최초의 목사였던 최흥종은 나환자 병원 건립을 위해 광주에서 서울의 조선총독부까지 나환자들과 함께 도보 행진을 벌였다. 행진에는 전국에서 나환자 500여 명이 집결해 결국 조선총독부를 굴복시켜 소록도에 나환자 전문병원 건립 허가를 받아내었다.

최흥종 목사는 인생 후반부에 거세 수술을 하고 자신은 죽었다고 사망 통지문을 보내면서 일체의 대외사업을 접고 오로지 빈민구제와 나환자와 결핵환자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다. 1966년 5월 18일에 광주시민장으로 치러진 그의 장례식에는 10만여 명이 몰렸고 특히 거지와 결핵과 나병에 걸린 환우들이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했다고 하니 최흥종 목사는 희생과 배려와 섬김에 기반한 광주정신의 원형이며 '광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오방 최흥종은 광주 시민사회단체의 맏형 격인 광주 YMCA를 창립하였고 3·1운동의 광주 책임자였으며, 좌·우 합작 성격을 지니는 신간회의 광주 책임자로 좌우를 함께 아울렀다는 점에서 통일조국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40여 년 전 군사반란 세력이 주도한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과 생명이 유린된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 땅의 민주화 제단에 피를 흘려 민주주의 초석을 다졌다. 아직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지 않았고 배상과 보상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일 동안의 민주 해방구에 형사사건 하나 없고 주먹밥 공동체와 헌혈과 분수대 학습동아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5·18정신은 그 때 참여 못한 사람들의 무거운 부채의식 속에 전국화와 세계화는 여전히 더디다.

해마다 5월이 오면 일제 강점기 때 가장 소외된 나환자와 결핵환자, 걸인들을 섬기며 복음주의적 사회사업을 펼쳤던 시대의 어른 오방(五放) 최흥종 목사가 더욱 그리워진다. 최흥종 목사의 환대의 영성이 광주정신 못자리의 줄기가 아닐까 한다.

社 說

국립의대 설립 용역…이젠 되돌릴 수 없다

전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둘러싼 순천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학 추천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민들의 숙원인 국립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전남 국립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0억 원을 들여 6월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10월에 대학을 정부에 추천한다는 타임 스케줄도 공개했다.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이 기관이 주도해 3단계 방식으로 추천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1단계로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결정한 후단계에선 사전심사위원회를 꾸려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하고 3단계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공정하게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순천대와 순천시가 공모에 불참하면 한번 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순천지역에서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법률적·정치적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남도가 용역을 강행하게 된 배경에는 '2026학년도 정원 200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남권 국립의대가 더 이상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에선 아직도 정부가 나서라며 전남도의 공모에 딴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남도에 권한을 위임한 터라 "전남도에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 '5자 회동' 제안때는 2년전 실시한 전남도의 용역 결과 공개를 주장하며 불참하더니 막상 공개하자 또 다른 불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국립의대 설립 용역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계속해서 딴지를 건다면 소지역주의를 조장할 뿐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공모에 참여하길 바란다.

법 악용 '음주 뺑소니' 근절 대책 마련해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꼼수를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게 '음주사고 후 도주'다. 운전자가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음주량을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 수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럴 경우 경찰은 아무리 정황상 음주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결국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처벌하려면 반드시 음주 측정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도 사고를 내고 잠적한 후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두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3차선 도로에 외제차를 방치하고 잠적했던 차량 소유자가 다음날 경찰에 자수해 음주운전 혐의는 벗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입건됐다. 광주시 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운전자도 차량을 남겨둔 채 종적을 감췄다 17시간만에 경찰에 나타나 역시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음주사고 후 도망가면 사고 미조치로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 인명 피해 사고 없이 단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등 단독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음주처벌이 불가능하다.

얼마 전 검찰이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더불어 사고 후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추적기술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무엇보다 상시 단속과 함께 이번 김호중 구속을 계기로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각종 꼼수로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도록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無 等 鼓

시인 신경림

지난 22일 88세를 일기로 별세한 신경림 시인은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문인이었다. 예술원 회원이기도 했던 고인이 현대문학사에 남긴 족적은 또렷하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로 시작되는 '농무'는 현대시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당대 민중으로 대변되는 농민들의 삶을 핍진하면서도 서정적으로 그렸다. 이밖에 '가난한 사랑 노래', '목계장터', '쓰러진 것들을 위하여' 등도 문학적 역량을 보여주는 수작들로 꼽힌다.

1936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젊은 시절 강원도와 충청도 등지를 떠돌며 농부와 광부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다. 사색적이면서도 민요풍의 작품은 그와 같은 밑바닥 체험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1970~1980년대에는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고문,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문단의 자유실천운동과 민주화에도 기여했다.

올해는 고인의 첫 시집 '농무'가 출간된 지 50년째가 되는 해다. 1975년 창비시선 1호로 출간된 작품집은 그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민중시라는 카테고리에 국한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요인들이 있는데 '갈대'는 인간에 대한 탐색, 동서양의 조화, 사유의 깊이가 정치하게 맞물린 작품이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중략)/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지속되는 경제난에 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과 작은 위로 한번 받을 수 없는 소외된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불현듯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가 떠오른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 돌아서는 내 등뒤에 터지던 네 울음. /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